

# '생명에 대한 책임' 경영화두

## 산문박의 100년

### 일양약품 정형식 회장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 1946년 첫 문을 연 (주)일양약품의 캐치프레이즈다. 뿐만 아니라 맨주먹으로 회사를 일으켜 50년을 경영현장에서 뛰여 온 정형식(鄭亨植·75세)회장의 경영 신조이기도 하다.

#### 금탑산업훈장 '영예'

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상공의 날 기념식장에서는 이 기업정신이 더욱 새로운 빛을 받았다. 정회장이 금탑산업훈장 중에서도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창업 반세기라는 의미를 지닌 올해에 이같은 훈장까지 차지한 정회장은 거듭거듭 '생명에 대한 책임'을 생각했다. 이제 기업으로서 굳은 자리를 확보한 일양약품의 위상에 어울리는 책임을 앞으로 더욱 빛나게 저나야 한다는 생각이 정회장을 숙연케 했다.

다른 어느 기업보다 제약회사는 생산품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갖는다. 생명을 다루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며 참선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집의 불교신행입니다. 온 가족이 불암사를 다니며 정진하는데 그러한 공덕이 오늘날 일양약품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회장은 50년간 기업을 이끌며 단 한번도 노사분규로 회사가 혼란에 빠진 적이 없었던 것도 부처님의 화합에 대한 가르침을 잊지 않은 덕분이라고 말했다.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연기법을 생각하며 노사가 가슴을 열고 대화하는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고리가 저절로 풀려지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자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공부하는 경영인'으로도 통하고 있는 정회장은 무엇보다도 한번 의심을 내면 풀고야 만다. 그 의심이란 신제품 개발에 대한 가능성,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발전 회사와 사회복지의 실현 등에 대한 스스로의 집념이다. 고려인상으로 만든 '원비'와 영지버섯으로 만든 '영비전'을



임연태 기자

## 의심내면 풀고야마는 기업인 '신약개발' 50년 연기법 생각하며 노사대화...분규 한 건도 없어

그래서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면에 있어 정회장은 불교가 가르치는 생명관을 확고히 지니고 있다. 몇 안되는 노경영자중 한 사람인 정회장은 선대부터 이어져온 불자집안의 가풍을 토대로 생명의 존엄성을 삶의 철학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바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대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노병사의 고통을 여윈 해탈이 곧 무한한 생명의 절대자유이니 부처님께서 밝혀 놓으신 법이 모두 참생명의 도리야니가. 우리 회사의 신념 또한 건강한 생명을 지키는데 있으니 이것은 개인의 종교를 초월한 경영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일일불심념 제약개자기(一日不善念 諸惡皆自起). '하루도 착한 일을 생각 않고 행하지 않으면 온갖 불행이 스스로 일어난다' 이것은 정회장 집안에 가훈처럼 내려오는 신행지침이다. "복을 빌기에 앞서 불교 교리를 공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것이나 최초의 기업 민속씨름단 결성, 기업내의 광범위한 복지시설 등이 그가 일으킨 의의에 대한 결과로 실현됐다. 인삼이나 영지버섯을 원료로한 제품생산에 있어 정회장은 특별한 공을 들였다. 최근에는 항암·면역증강 효과가 있는 특수 영지균주를 개발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우리 것의 우수성을 세계적 경쟁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성장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란 두가지 화두를 한꺼번에 풀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했던 청년시절의 배고픔을 잊지 않는 것도 정회장은 "쌈빡한 활력"이다. 아직 6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정회장은 "마음이 건강해서 몸도 건강하다"며 그 마음의 건강은 젊은 시절의 고난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좌절의 대가는 실패이지만 집념을 잃지 않는 도전의 대가는 성공이라는 진리를 일찍부터 몸으로 배웠던 것이 오늘의 노경영인을 있게 한 것이라 설명한다.

해방 이듬해부터 오늘날까지 단 하루

도 평탄한 날은 없었다.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에게 지난 50년은 매일매일이 '도전과 응전'의 현상이었다. 사세의 확장, 신제품 개발, 판매전략, 인사관리, 해외공장 건설과 관리, 생산성 증대, 국내외 경쟁력 제고... 이러한 화두들이 속에 반세기가 하루같이 지나가 버렸지만 정회장은 정작 풀어야 할 화두 하나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 온가족 불암사 신도

"다름아닌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는 우리 회사의 캐치 프레이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결국 정회장은 50년을 가슴에 안고 살아 온 그 화두를 풀기 위해 수많은 화두들을 뿌리채 깨며 경영현장을 뛰어온 것이다. 경영을 통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가 정회장의 가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에 대한 책임'이란 화두가 먼저 풀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화두풀이는 앞으로 더 많은 신제품과 더 많은 공장건설과 더 높은 경쟁력 제고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

에 풀리지 않은 그대로가 더 발전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나는 왕성한 의욕이 있습니다. 이 기본 혼란도 그 의욕을 더욱 발산 시키란 재적일 것입니다. 좀더 연구하고 뛰면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나를 매진시키겠습니다."

매년 초파일이면 40여개 사찰에 1만 명의 '원비'와 '영비전'을 보내는 정회장은 해마다 불암사 신도회장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봉축사를 통해 "우리도 부처님을 따라 거리에 이웃에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밝은 등불을 켜자"고 발원한다. 모든 생명이 함께 잘 사는 것이 바로 국극임을 믿기 때문이다.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엇보다도 귀한 경영철학과 인간 존중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경영이란 화두를 들고 있고 부처님은 만생명의 자유라는 절대진리를 보이셨으니..."

#### 스님들께서 국사 도울수 없는지

**문** 예전엔 국사·왕사가 있어서 국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엔 그런 제도가 없지만 스님들 나름대로 그런 소임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지원하실 수는 없지요.

(장유성·대구 달성군 논곡면)

**답** 부처님께서는 국사나 왕사나 그런 이름은 갖지 않으셨어도 전 세계뿐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를 한 손아귀에 넣고 중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사람들이 부처님께 열거 명호를 불여 드리면서 따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스님들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더라도 떠나서 여러방면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 일을 돕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스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식으로 딱 부러지게 답이 나와야 뭔가 일을 했구나 하시겠지만 스님들이 마음속으로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법은 그래서 묘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원력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음으로

바르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기복에 매달려 남보다 더 거질려 하고 욕심이나 총족시키려 한다면 그게 삼독심인데 삼독심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좀 다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공산주의는 원래 공 한조각이라도 나눠먹자는 불교적 정신에서 출발한 것인데 본뜻에서 빗나간 결과로 진짜 맛을 보지도 못하고 쇠라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근본을 놓쳤기 때문이지요.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국민들이, 아니 불자들이라도 바른 수행을 한다면 결과도 달라지게 되겠지요. 일본사람들, 우리 역사를 잊어버리지만 살아남는 모습을 보면 기록한데가 많습니. 사찰의 발우공양을 받으며 공자밥을 먹는 것만 보아도 그 문화가 제법 반듯하지 않던가요? 환경문제로 아라칸등에 발달 한들 흘러지 않았나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르침을 잘 지키는 셈이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조선조 5백년만하더라도 얼마나 부러울 일을 많이 했습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목살했지요. 그러나 반쪽이 되어 이 고생들인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줄을 모르니 격정이지요.

아무튼 사람들이 깨이지 못한만큼 그에 따른 방편은 여러가지일 것입니다. 달라야마가 있는데, 큰스님이 많은데 티벳이 왜 저 모양인가 하고 의아해 하시기 전에 저건 무슨 방편

#### 지 상 상 탐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탐은 조계종 한양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슬기롭게 고했을 뿐인 것입니다.

태양이 내리쬐이는데 각자 알아서 발을 찍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내다 말할 것은 내다 말도 그늘에 돌 것은 그늘에 두듯이 세상 일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법은 여여합니다. 문제는 형상에 얽매어 좋다, 나쁘다 하면서 자꾸 기복으로 흐르는 일이지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치우치니까 세상이 귀신들로 꼭 차게 되는 것입니다.

#### 도인스님이 왜 망국을 막지 않나요

**문** 스님, 티벳에 달라이라미와 같은 큰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나라는 지금 중국의 발굽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합방 당시 우리나라에도 도인스님이 많았을텐데 나라를 잃고 오랜동안 잔학한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일을 막을 힘은 없었던 것인가요?

(홍국한·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답** 세상을 바라보되 밝게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물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안목입니다. 그것은 세상 일을 좁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령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나, 도인이든 아니든 '이렇게 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안되었다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됐다 안됐다 말할 수 있고 인됐다 안됐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방편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시절엔 그분밖에 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닦고

일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그렇다 하지 말고 나름대로 굴러 놓고 지켜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 기도를 하면 업장이 사라지지는

**문**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까이 지내는 법 사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보살님의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해서 업장을 녹여야 관함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 이렇게 여쭙습니다.

(최인순·서울 중로구 평창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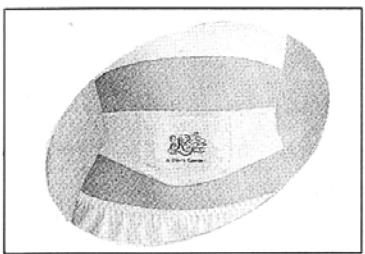
**답** 금강경에 삼세불꽃가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시 미래시 현재시 어느 시에 업장이 쌓여 있을까요? 일체는 공해서 돌아갑니다. 마치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디에 먼지 불을 자리가 있을까요. 업장이 두터우니 도대체 무슨 업이 붙는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업이 붙는다면 바로 업이 있다는 그 관념 때문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제발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과거삼불가득, 현재삼불가득, 미래삼불가득은 일체가 들어 아닌 까닭에 '불가득'이라고 한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것이 불가득이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법무요 제행무상이며 연기는 바로 공도리임을 부처님께서 누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집달로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멀쩡 도제의 가르침이 있는데 업장은 무슨 업장인가요. 그런 생각 몽땅 내던지세요.

##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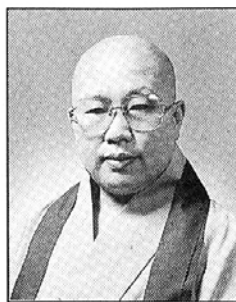
####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 10. 생리 때 뒷맛이 겉고 딱하다. (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 16. 목이 빠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7. 변비가 있다. ( )

27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 妙心스님 音樂活動 回向紀念



#### 출연진

- 메조소프라노 : 묘 심 ... 금강선원 원장
- 소 프 라 노 : 권영희 ... 제주대,군산대 출강
- 테 너 : 이춘기 ... 제주대 음악과 교수
- 테 너 : 조영수 ... 부산 예술대 교수

#### 찬조출연: (기수) 조영남

· 불교서정가곡의 매력에 심취되어 이 음악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피 아 노 : 이희열

#### 출연단체

- 청 룡 마 야 합창단 : (지휘) 정옥녀
- 비 로 자 나 합창단 : (지휘) 조영근

- 일 시 : 1996년 6월 5일 오후 7시
- 장 소 :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452 - 0002)
- 주 최 : 소리샘 예술기획 (596 - 7162)
- 후 원 : BBS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불교음악 연구원, 수국사합창단, 중앙합창단, 인천동암사 합창단, 부산우담바라합창단, 부산삼광사합창단, 부산한마음선원합창단, 금강불교합창단, 청룡마야 합창단, 부산불교연회합창단
- 협 찬 : 불교여래연

## 慈善 音樂會

신체장애자 돕기